

---

#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 수시 일반 논술

---

### -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5.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6.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7.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8.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9.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에만 작성하십시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CHUNG-ANG UNIVERSITY

##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는 돈을 처리하는 기능과 음료수를 선택하는 기능, 그리고 선택된 음료수를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런 기능들이 각각 모듈화되어 자판기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모듈이란 문제를 기능별로 분할한 논리적인 일부분을 말한다.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단순한 모듈로 나누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천 원짜리 신권 지폐가 발행되었는데 기존의 지폐보다 크기가 작아져서 기존의 자판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자판기가 모듈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기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판기 전체를 다시 설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 자판기를 모듈화해서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함수처럼 만들어 주면 이 부분만 개선하여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관리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된다.

(나) 로마의 귀족은 평민보다 앞서서 절제된 행동과 납세의 의무를 다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사재로 전쟁세를 내어 국가를 수호하였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 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나 공직자는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인(公人)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선천적 재능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신의 지위를 성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의 지도층에게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위해 그들의 천부적 자질을 이용하고 사회적 여건을 활용하라고 요구한다. 사회 구성원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그들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는 개인에게 배분된 자연적 능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배당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나 관리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기술과 지식 역시 여러 대에 걸쳐 누적되어 온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대인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이처럼 기술과 지식은 사회로부터 개인이 빌려 온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그에 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의감, 즉 공개념적 사고에 기인한다.

**(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대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 통신 기술 범죄의 여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는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모습도 같이 갖고 있다. 2009년 7월 '디도스(DDoS)'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은행의 주요 사이트들이 마비되었고, 미국 국방성의 전산망도 외부와 차단되었다. 디도스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작동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분산시키고, 해당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의 패킷(데이터)을 동시에 전송시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또는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다. 즉,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가 이러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디도스 사례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이 파급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특정한 정부 기관이나 보안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개별 컴퓨터 이용자들이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위기를 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라)** 아직까지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수나 종류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육지의 큰 생물들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곤충, 균류, 세균 및 현미경적 크기의 다른 생물들 수백만 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구 상의 생물 종 수가 약 1천만 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들의 다양성은 엄청나지만, 알려진 모든 종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모든 생물들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기본 물질로 하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 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 조상은 지구 상의 생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따른 생물 종과 집단 사이의 계속적인 갈래는 생명의 가지치기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들은 기본적 동일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 생물 계통수에 배열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생물들은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두 개가 원핵생물이며, 다른 하나가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에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남세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 황세균과 같이 세균과는 여러 면에서 특성이 다르며 화산 지대와 같이 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세균이 있다. 진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아메바, 짚신벌레 등)과 세 가지 주요 다세포 생물군인 식물, 균류, 동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종류로 아우르면 우리의 생각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상이 속한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이 속하지 않은 다른 종류와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성격도 한결 구체화되며, 상위에 속하는 것과 하위에 속하는 것이 구분되어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

(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이다.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분절하고 범주화하여 인식하므로 우리가 객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색, 예컨대 녹색과 청색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선은 아주 녹색도 아주 청색도 아니지만 그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모호한 색깔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어중간한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베리아의 바사(Bassa)어에서는 무지개 색을 오직 두 가지로만 구별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해 나타나는 색은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어에서도 초록색, 청색, 남색을 모두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준다. 우리 어린이들이 흔히 이 세 가지 색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단어를 쓰기 때문이다.

(바)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 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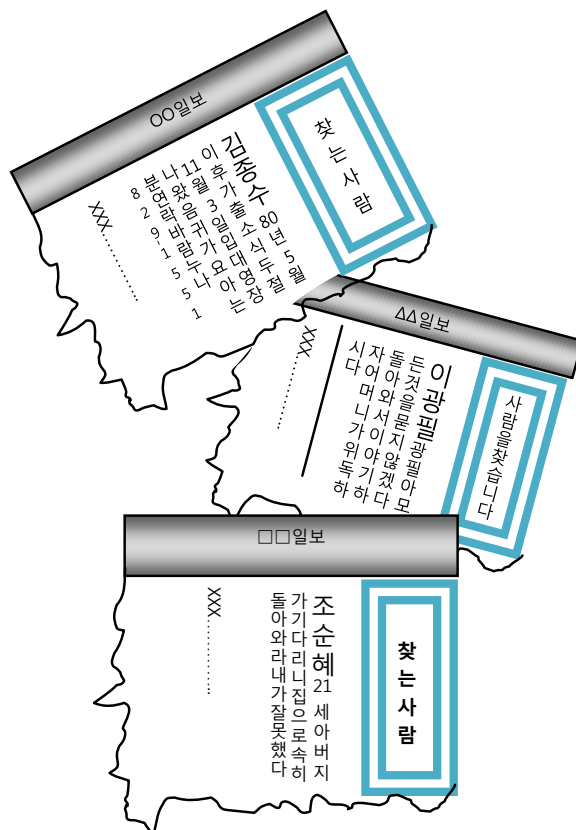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온 것은 곧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추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 준다. 카누를 날라 주고 자식들을 길러 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

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사)

<신문 광고>

<시>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쭉그리고 앉아  
똥을 누다

(아) 일반적으로 시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 속에 특별한 말로 굉장한 무엇인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일상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지 특별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는 바로 일상의 언어로부터 출발한다.

문학은 경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신문 기사나 보고서, 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과 다르다. 문학은 일상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경험 세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면하게 한다. 문학 작품의 비판적·창조적 재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시어나 소재, 주제를 바꾸면 새로운 작품이 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소설을 시로 재구성하거나,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는 재구성할 형식이 가진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 스크랩, 극장의 포스터, 광고 메시지, 금전 출납부, 동상의 받침대에 새긴 문안 따위를 작품 속에 옮겨 재배치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재구성된

재료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흔히 내용만 따라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공들여 배치한 여러 가지 미적인 형식이 감춰져 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독자는 작품의 내용 속에 감추어진 섬세한 미적인 형식을 발견해냄으로써 보다 높은 미적 성취를 얻게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00~420자]**